

유럽계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의 평가기준과 발표내용

1. 7개 은행 부실 판정

□ 평가대상 91개 은행 중 7개 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실패

○ 유럽은행감독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Banking Supervisors: CEBS)는 금년 7월 23일 국채가격 손실 시나리오 하에서 7개 은행이 기본자본비율(Tier 1 capital ratio) 기준인 6%를 하회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에 실패하였다고 발표함.

- 7개의 부실은행: Diada, Espiga, Banca Civica, Unnim, Cajasur(이탈리아), Hypo Real Estate(독일) 및 ATEbank(그리스)

- 부실은행의 국채가격 손실 시나리오 하에서 기본자본비율은 평균 4.6%로, 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5억 유로의 자본 확충이 요구됨.

<표 1> 스트레스 테스트 불합격 은행의 테스트 결과

단위: 백만 유로

	기본자본 (2009)	추정손실 ¹⁾		기본자본비율(%) ¹⁾		증자 필요액
		위기 시나리오	국채가격 손실 시나리오	위기 시나리오	국채가격 손실 시나리오	
Hypo Real Estate	7,613	3,240	3,786	5.3	4.7	1,245
ATEbank	1,263	787	1,475	8.9	4.4	243
Diada	3,470	4,913	5,299	4.5	3.9	1,032
Espiga	2,475	2,104	2,323	6.1	5.6	127
Banca Civica	2,900	2,551	2,775	5.2	4.7	406
Unnim	1,426	1,658	1,793	5.1	4.5	270
Cajasur	222	686	779	4.9	4.3	208
계	19,369	15,939	18,230	5.7 ²⁾	4.6 ²⁾	3,531

주: 1) 2011년 말 기준
2) 7개 은행 평균치
자료: CEBS 2010.7.23.

2.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럽계 은행의 재무구조 악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금융부문 부실과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 유럽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은행 부실을 초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으나, 유럽계 은행의 부실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어 왔음.
- 2007년 말 기준 EU 회원국 은행의 평균 세전 순이익이 약 3,2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말 기준 -160억 달러의 평균 세전 손실을 기록하였음. 또 2007년 2분기 이후 2009년 1월 말까지 유럽계 상장 대형 은행의 시가총액이 50% 이상 감소하여 유럽계 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초래됨.
- EU 및 유럽 각국 정부는 은행 부실 방지를 위해 금융안정기금¹⁾을 조성하고 자국 은행에 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의 국채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유럽계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됨.

□ EU,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시장의 신뢰회복 기대

- EU는 2009년 10월 1일 22개의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1차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으나 모든 은행이 테스트를 통과한데다 EU가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실패하였음.

1) 자금난에 처한 EU 회원국 은행의 부실 방지를 위한 자금으로,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은 독일국채관리소(German Debt Office)가 유럽금융안정기구(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를 대신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함.

- 1차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발표 후 테스트 기준의 엄격성과 결과 공개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되었으며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 2009년 12월 EU 재무장관회의(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ECOFIN)에서 EU는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신뢰회복을 위해 91개 유럽 은행을 대상으로 2차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에 스트레스테스트 시행을 권고함.
- EU는 2차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부실은행을 구분함으로써 유럽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고 금융시장 안정을 제고하고자 함.
-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은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건전성 증대 효과, 통과한 은행은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예상됨.

3. 스트레스테스트의 평가기준과 가정 시나리오

□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유럽계 은행의 부실 가능성 진단

- 금번 스트레스테스트의 평가기준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국채수익률 등에 대한 비관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91개 유럽계 은행 중 기본자본비율(Tier 1 capital ratio)을 6%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함.
- 정상 시나리오, 위기 시나리오, 국채가격 손실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각 시나리오 하에서 테스트 대상 은행의 2010~11년 기본자본(Tier 1 capital)²⁾, 손실 등을 추정하고 국채가격 손실 시나리오 하

2)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 등을 포함하는 자본을 의미함.

에서 2011년 기본자본비율(Tier 1 capital ratio)³⁾이 6%를 하회할 경우 테스트 통과에 실패한 것으로 판정함.

- EU는 더블딥(double-dip) 경기후퇴⁴⁾와 같은 위기상황 하에서도 각 은행이 파산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재무건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 가정 시나리오

① 정상 시나리오(benchmark): EU 집행위원회의 전망치에 따라 2010~11년 지속적인 경기회복 가정

② 위기 시나리오(Adverse)⁵⁾: 2010~11년 더블딥으로 인한 경기후퇴 가정

- 경제성장률: EU집행위원회의 전망치(2010년 1.0%, 2011년 1.7%)보다 2개년 총합 3% 추가 하락
- 국채수익률: 3개월 만기 국채수익률 125bp 상승,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75bp 상승
- 실업률: 6% 포인트 상승
- 국가 신용등급: 4단계 하향조정
- 시장금리: 6% 포인트 상승
- 주식가치: 매년 20%씩 하락

③ 국채가격 손실 시나리오(Additional Sovereign Shock)⁶⁾:

위기 시나리오(Adverse)에 국채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률(haircut) 적용

3) 기본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4) 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 상태로 돌아서는 이중침체 현상으로 두 번의 경기침체를 겪고 회복기로 돌아선다는 점에서 'W자형' 경제구조라고도 함.

5) CEBS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는 발생확률 5%의 상당히 비관적인 시나리오라고 함.

6) CEBS는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 발생한 사례가 없어 발생 확률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함.

-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보유 국채의 가치가 그리스 국채의 경우 23.1%, 포르투갈 14.1%, 스페인 12.0%, 이탈리아 7.4%, 벨기에 6.9%, 프랑스 6.0%, 독일 4.7% 하락하는 상황 추가
- 2011년 말 기준 국채수익률 가정7): 3.82%(독일), 5.62%(아일랜드), 5.78%(스페인), 7.40%(포르투갈), 13.87%(그리스)

□ 스트레스트 테스트 대상은 20개국의 91개 은행으로 선정

- 금번 스트레스트 테스트는 당초에는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스페인의 소형 저축은행(cajas)에 대한 부실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포함한 총 91개 은행(유럽계 은행 총 자산의 65%에 해당)을 테스트 대상으로 결정함.
- 영국은 규모가 큰 4개 은행(HSBC, Royal Bank of Scotland, Lloyds, Barclays)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독일에서는 주립은행(Landesbanken)이 스트레스트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됨.
- 스페인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지만 국가 경제 전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붕괴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저축은행(cajas)을 포함한 총 27개 은행을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함.

4. 스트레스트 테스트 결과에 대한 반응

□ 시장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기준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 발생

- 지난 7월 23일의 스트레스트 테스트 결과 발표 이후, 7월 말에는 유로 가치(달러 대비)가 전월 말 대비 6.7% 상승하며 8개월 만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등 스트레스트 테스트 결과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남. 또 주가 상승, CDS 프리

7) 유럽중앙은행(ECB)의 결정에 따라 EU 회원국 정부의 채무불이행(sovereign default)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음.

미엄 하락, 단기금리 안정 등으로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호전됨.

- 이번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유럽은행 부실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 신뢰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시장의 일각에서는 이번 스트레스테스트 기준과 관련하여 정부 부도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국채가격 손실비율이 과소 적용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함.
- 국채가격 손실 시나리오 가정 하에서 손실률(haircut)을 거래계정(trading book)에만 적용하고 은행계정(banking book)에 있는 보유 국채에 대해서는 손실률을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평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됨.
- 또한, 기본자본(Aggregate Tier 1 capital)이 아닌 핵심자본(Core Tier 1 capital)을 기준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기본자본에는 하이브리드 채권⁸⁾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자기자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임.
- 2009년 미국에서 시행된 스트레스테스트의 경우 기본자본비율은 6%로 유럽과 동일한 비율을 기준으로 유지하면서 테스트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핵심자본비율 4%를 기준으로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였음.
- 독일의 6개 은행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그리스의 ATEbank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발표 후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하여 이번 테스트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함.

8)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으로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도 매매가 가능한 자본증권임. 은행이 자본금 확충 또는 자본 조달을 위해 발행함.

□ 유럽계 은행의 외채상환 부담 여전

- 스트레스테스트 발표 이후 유럽의 금융시장 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가 의도했던 투자자 신뢰회복이라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시장 참가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EU 회원국 정부는 부실가능 은행으로 판정된 은행에 대해 자본을 확충하고 은행 재무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이번 스트레스테스트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유럽계 은행이 차환해야 할 채무규모가 3.3조 유로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의 외채상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

조사역 최희정, 인턴 박선미

(☎ 02-3779-6676)

E-mail : heej_choi@koreaexim.go.kr